수익만 좇는 공기업…영세민 살 집이 없다

민간공원 개발까지 손뻗은 공기업 LH

하 여전히 부족한 공공임대

2010년 이후 광주 임대 아파트 9804세대 공급…전체의 14%

남구 4500세대·동구는 없어…공급 유형·시기·장소 분산 안돼

"다양한 조건 정기적으로 공급했다면 주거 양극화 없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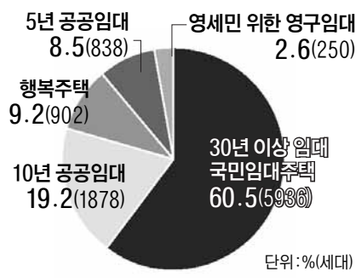
서민이나 중산층이 선호하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광주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은 물론 공공에서조차 임대아파트 공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수억원의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분양아파트만 쏟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편향된 주택공급이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는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이들의 주거난이 심각한 상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사용중인 아파트는 분양 973개 단지 34만1200세대, 임대 82개 단지 5만1409세대 등 1055개 단지 39만2609세대, 시공중인 아파트는 분양 43개 단지 3만1281세대, 임대 11개 단지 3857세대 등 54개 단지 2만8669세다. 사용중인 아파트 가운데 임대의 비율은 13.1%, 시공중인 아파트 중 임대의 비율은 13.45%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임대나 5년,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기간 만료 후 분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인 공급이 없으면 임대아파트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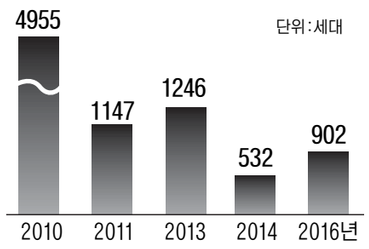
공기업인 LH가 지난 2010년 이후 광주에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9804세대로, 같은 기간 광주시 아파트 공급량(6만2239세대)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세대 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문제는 공급 유형과 시기, 장소가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9804세대 가운데 남구 4512세대(46.0%)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광산구 3384세대(34.5%), 북구 1908세대(19.5%) 등에 집중돼 있다. 같은 기간 서구와 동구에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임대아파트 중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이 5936세대(60.5%)로 가장 많았고, 10년 공공임대 1878세대(19.2%),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차료 저렴 도심형 아파트) 902세대(9.2%), 5년 공공임대 838세대(8.5%) 등의 비중을 보였다. 영세민들을 위한 영구임대는 250세대(2.6%)에 그쳤다.

▪임대아파트 공급 유형



▪연도별 임대아파트 공급 세대



광주도시공사가 올 들어 광주시 서구 농성동 96-1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98세대를 공급했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세민들이 여전히 '입주 대기'중인 형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수는 총 2만4574가구로, 광주는 1532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가 영구·국민임대 주택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 커녕 행복주택 부지로 바꾸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H의 임대아파트 공급도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LH는 2010년 4955세대를 공급한 후 2011년 1147세대, 2013년 1246세대, 2014년 532세대, 2015년 1022세대, 2016년 902세대 등의 편차를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임대 조건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주거 양극화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광주와 지난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센다이시의 경우 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절반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택 유형과 공급 시기 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30% 지역인재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인재에서 뽑는다.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광주·전남 13곳을 비롯해 전북 6곳, 부산 11곳, 대구 9곳, 울산 7곳, 강원 11곳, 충북 10곳, 경북 8곳, 경남 10곳, 제주 3곳, 충남 2곳, 세종 19곳이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다. 지난 2016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1.4%에 그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높여 2022년이 되면 30%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적용 예외다. 또,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하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이전지역 학교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일부 범죄 수사권 부여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문재인 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핵심 세부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장·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되,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되면 소관 업무 범위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업무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벼운 사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권도 보유한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최근 논란이 된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외사·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경찰 사무, 사이버테러 수사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겼다.

/연합뉴스

전남대 교수 87명 '평화실현' 시국선언 전남대학교 교수 87명이 7일 전남대 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반대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행사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

성인 3분의 1 "여력 없어 노후 준비 못해"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일보다 가정 우선" 50% 넘어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성인 인구 중 3분의1 가량은 아무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13세 이상 3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집계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가정보다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19세 이상)은 전체의 43.1%로, 2년 전 조사(53.7%)보다 10.6%포인트 감소했다. 2011년 관련 항목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비율은 13.9%, 둘 다 비슷하다는 42.9%로 각각 2년 전보다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30대(17.6%)에서 가장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가 전체의 34.6%였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39.1%였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33.3%), '아직 생각 안함'(17.8%) 등의 순이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53.3%는 국민연금을 주된 방법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69.4%는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고, 77.8%는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선호하는 장례방법은 화장 후 봉안(납골당, 납골묘)이 44.2%였고,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이 43.6%, 매장(묘지)이 10.9%였다.

/연합뉴스

2억, 투자시
월 300만원씩 지불, 1분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경매 진행 물건
▪전화상담 사절
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KTX 개통 최대 혜택지
▶투자가치의 3개소
▶11억, 12억, 19억
▶각 코너 위치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대형부지 (만오천평)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2018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입학원서 작성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전 형 일		2017. 12. 5.(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12.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 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